

2018년 11월 6일

#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나스닥, 애플, 아마존 하락 여파로 부진 트럼프, “구글, 아마존 등 반독점 제재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 대형 기술주 하락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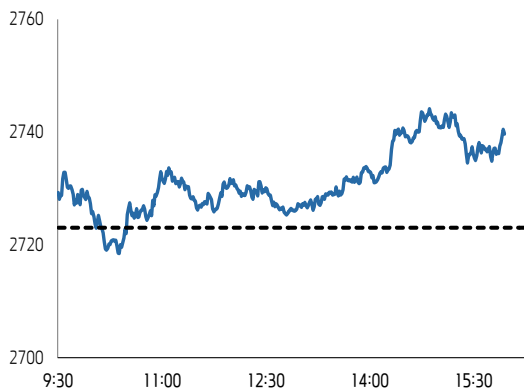
미 증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대형 기술주가 부진하며 나스닥은 하락하는 등 혼조 마감. 대형기술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독점 제재 가능성을 제기하고, 애플은 아이폰 XR 생산량 감소 등의 여파로 부진. 한편, 중간선거 결과가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유력한 가운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어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은 관망하는 모습(다우 +0.76%, 나스닥 -0.38%, S&P500 +0.56%, 러셀 2000 -0.03%)

대형기술주는 일부 악재성 재료가 발표되며 나스닥 하락을 주도. 알파벳(-1.47%)과 아마존(-2.27%)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형 기술업체에게 피해를 주려는 것은 아니지만, 반독점 제재 여부를 매우 심각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 라고 주장. 실제 제재가 진행 된다면 관련 기업들의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 더불어 최근 영국이 인터넷 플랫폼 회사들에 대한 세금을 발표 한 데 이어 독일과 프랑스 또한 대형 디지털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 계획을 언급. 물론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 등은 반대를 하고 있어 유로존의 세금 부과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영국에 이어 독일과 프랑스 등도 대형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세금 부과 가능성은 관련 기업 투자 심리 위축.

한편, 애플(-2.84%)도 큐로브(-6.32%), 스카이웍(-2.66%) 등 부품업체들과 동반 하락. 전일 니혼게이자 신문이 아이폰 조립업체들이 아이폰 XR 전용 생산 라인 증설 계획을 중단을 보도. 폭스콘 또한 “아이폰 XR 을 위해 60 개의 조립라인이 준비되어 있으나, 현재는 45 개의 생산라인만이 사용 중” 이라고 주장하며 아이폰 XR 생산 둔화 가능성이 제기. 애플의 저가폰인 아이폰 XR 에 대한 생산 감소 가능성이 높아지자 수요에 대한 우려로 확산되며 하락. 이 여파로 애플 부품주는 물론 마이크론(-0.99%)등 반도체 업종 또한 부진.

반면, 버크셔해셔웨이(+4.68%), IBM(+3.80%) 등은 자사주 매입 발표나 내부자의 주식매입 발표에 힘입어 상승하자 다우, S&P500 은 강세. 증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개별 기업 이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등락을 보임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2,076.92	-0.91	홍콩항셱		25,934.39	-2.08
KOSDAQ		691.94	+0.19	영국		7,103.84	+0.14
DOW		25,461.70	+0.76	독일		11,494.96	-0.21
NASDAQ		7,328.85	-0.38	프랑스		5,101.39	-0.01
S&P 500		2,737.52	+0.53	스페인		9,010.70	+0.20
상하이종합		2,665.43	-0.41	그리스		618.84	-0.09
일본		21,898.99	-1.55	이탈리아		19,281.03	-0.5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대형 기술주 부진

알파벳(-1.47%), 아마존(-2.27%)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독점 제재 언급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 했다. 더불어 영국에 이어 독일과 프랑스도 세금 부과 주장을 한 점도 부정적이다. 반면, 넷플릭스(+2.05%)는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애플(-2.84%)은 아이폰XR 생산량 감소 소식이 전해진 여파로 하락 했다. 큐로브(-6.32%), 스카이웍(-2.66%) 등 부품주도 동반 하락 했다. 마이크론(-0.99%), 브로드컴(-0.31%) 등 반도체 업종도 동반 하락 했다. 다만, 대형기술주가 낙폭을 축소하자 애플 관련주도 하락폭이 축소 되는 경향을 보였다.

IBM(+3.80%), 세브론(+3.67%), 맥도날드(+2.06%)는 양호한 실적 발표, 또는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입 발표 등 주주환원 정책 발표, 또는 세브론 처럼 투자자의견이 상향 조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했다. 코노코필립스(+1.75%), EOG리소스(+3.91%) 등 에너지 업종도 국제유가 강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일라이릴리(+3.18%)는 임상시험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발표로 상승 했다. 바크셔해쉬웨어(+4.68%)는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2.82%	대형 가치주 ETF	+1.19%
에너지섹터 ETF	+2.03%	중형 가치주 ETF	+0.79%
소매업체 ETF	+0.48%	소형 가치주 ETF	+0.51%
금융섹터 ETF	+1.52%	배당주 ETF	+1.01%
기술섹터 ETF	-0.07%	변동성 ETF	-1.39%
소셜 미디어업체 ETF	-0.70%	대형 성장주 ETF	-0.07%
인터넷업체 ETF	-1.00%	중형 성장주 ETF	-0.19%
리츠업체 ETF	+1.69%	소형 성장주 ETF	-0.63%
주택건설업체 ETF	+1.06%	신흥국 고배당 ETF	+0.79%
바이오섹터 ETF	-0.06%	신흥국 저변동성 ETF	+0.21%
헬스케어 ETF	+0.89%	하이일드 ETF	+0.09%
곡물 ETF	-0.56%	물가연동채 ETF	+0.18%
반도체 ETF	-0.95%	Long/short ETF	+0.2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09.06	+1.61%	+5.33%	-10.86%
소재	338.88	+0.39%	+6.85%	-6.19%
산업재	599.09	+0.53%	+4.88%	-9.95%
경기소비재	852.52	-0.18%	+5.42%	-5.02%
필수소비재	574.73	+1.21%	+2.53%	+3.13%
헬스케어	1,041.93	+0.84%	+2.80%	-4.45%
금융	444.04	+1.40%	+4.99%	-5.07%
IT	1,204.82	-0.18%	+2.65%	-5.67%
커뮤니케이션	149.39	-0.31%	+3.61%	-4.68%
유틸리티	273.31	+1.39%	-0.52%	-0.38%
부동산	200.76	+1.69%	+1.50%	+0.9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미 중간선거 결과를 기다리는 하루

MSCI 한국 지수는 0.44% 하락 했으나, MSCI 신흥 지수는 0.27%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1,889 계약)에 힘입어 1.40pt 상승한 271.45pt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19.8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대형 기술주가 부진한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 했다. 한편, 애플이 아이폰 XR 생산 감소 여파로 부품주와 동반 하락한 점은 부정적이다. 특히 이 여파로 반도체 업종도 부진한 점은 투자심리 위축 가능성을 높인다. 다만, 국제유가가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전환에 성공한 점은 긍정적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원유 가격 상승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느리게 가고 싶다” 라고 주장 하자 하락 전환 하는 등 원유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 한편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미 국채금리가 안정을 보인 점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요인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 시장은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만, 금융시장의 변화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미국 종목별 변화 요인에 반응을 보이며 반등이 예상되나 상승폭을 확대하기 보다는 상승 후 관망세가 짙을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중국 서비스업지수 둔화

10 월 미국 ISM 서비스업지수는 전월(61.6) 보다 둔화된 60.3 으로 발표되었다. 세부항목을 보면 고용지수(62.4→59.7), 신규수주(61.6→61.5) 등은 하락 했다.

10 월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지수는 전월(53.1) 보다 둔화된 50.8로 발표되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파운드화 강세

국제유가는 미국의 대 이란 제재 발효로 상승했다. 더불어 달러화 약세,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점진적으로 단행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자 하락 전환하였다.

달러화는 경제지표 둔화 및 유로화, 파운드화 강세 여파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이탈리아 예산안 관련 협상 진행이 온건히 진행되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북아일랜드 국경과 관세 동맹에 관한 협상 진전이 이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경제지표 둔화 및 FOMC 를 앞두고 하락 했다. 한편,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 하원이 민주, 공화로 갈리면서 향후 입법 교착 상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국채금리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입법 교착 상태가 진행되면 일부 인프라 투자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금리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3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 개월 평균(2.82 배)에 미치지 못한 2.54 배에 그치며 금리하락은 제한 되었다.

금은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 여파로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27%, 철근도 0.57%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3.10	-0.06	-5.88	Dollar Index	96.332	-0.22	-0.26
브렌트유	73.17	+0.47	-5.43	EUR/USD	1.1409	+0.18	+0.32
금	1,232.30	-0.08	+0.38	USD/JPY	113.22	+0.02	+0.76
은	14,647	-0.74	+1.42	GBP/USD	1.3041	+0.55	+1.94
알루미늄	1,975.00	+0.10	-0.45	USD/CHF	1.0043	+0.08	+0.24
전기동	6,191.00	-1.46	+0.50	AUD/USD	0.721	+0.24	+2.20
아연	2,520.00	-1.27	-3.89	USD/CAD	1.3105	-0.04	-0.22
옥수수	374.00	+0.74	+1.98	USD/BRL	3.7282	+0.71	+2.36
밀	507.25	-0.29	0.00	USD/CNH	6.9133	+0.22	-0.89
대두	885.75	-0.23	+3.93	USD/KRW	1123.50	+0.17	-1.57
커피	117.10	-2.46	+2.49	USD/KRW NDF1M	1119.85	+0.21	-2.03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201	-1.13	+11.59	스페인	1.564	-0.60	+2.30
한국	2.272	-0.80	+11.20	포르투갈	1.880	+0.20	+1.10
일본	0.128	-0.10	+1.80	그리스	4.269	-0.30	+8.70
독일	0.426	-0.20	+4.90	이탈리아	3.323	+0.50	-1.20